

고인돌박물관 연/계/전/시



실감형 스토리영상 **기적의 빛, 희망을 밝히다**

3,000년 시간을 거슬러 전해온 기적의 빛을 만난다.

몰입형 스토리와 감성적인 분위기, 서정적이고 풍부한 서운도를 담은 실감형 영상을 통해 고창 고인돌 유적의 가치를 경험한다.

위치: 고인돌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



라이브스캐저 체험 **고인돌 판타지아**

나만의 청동기 유물과 동물이 살아 숨쉬는 고인돌 판타지아

고창 고인돌 유적의 자연풍경 아트워크가 체험객이 직접 그린 청동기 유물과 동물들로 완성된다.

군민과 함께하는 연/계/행/사

고창장터



- **판매물품** 제철농산물 및 고창농특산물, 천연염색 도자기, 그 외 공예품
- **먹거리** 찌, 두부, 묵, 막걸리 등 장터음식
- **볼거리** 공예 및 천연염색 등 체험부스
- **볼거리** 버스킹 공연 등
- **일시** 2022.10.1(토)~10.27(목) 10:00~21:00
- **장소** 고인돌매점 앞 잔디광장

토요장터



- **판매물품** 가을수확 농산물 (대추, 감, 호박, 서리태, 당면 등)
- **수공예품** 매산마을 대바구니, 부기마을 천연염색 수공예품, 호임마을 도자기
- **먹거리** 고창특산물 (북분자 엿기스, 북분자주, 식혜, 오란대, 쫄면, 커피)
- **반찬류** 매실장아찌, 비빔밥용, 산채나물, 건나물류
- **일시** 행사기간 중 금, 토, 일 10:00~18:00
- **장소** 고인돌매점 앞 잔디광장

전/시/구/경

1. 고인돌, 잠에서 깨어나다

- 1 종합 안내소
- 2 물품 대여소, 미아 보호소
- 3 기념품 배포장

2. 기적의 빛

- 1 물지 보관소
- 2 운영요원 휴게소
- 3 운영 사무국
- 4 모유 수유실 (박물관 내부)

3. 바람의 노래

4. 황혼의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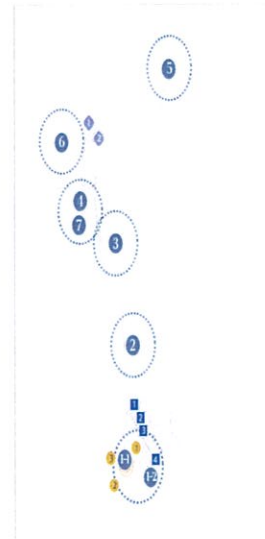
5. 염원, 그리고 순환의 고리

6. 작가 존

7. 인류의 불빛

- 1 물지 보관소
- 2 삼거리 나무 포토존

8. 실감형모형상관



행/사/일/정

구분	프로그램	개최일정	장소
개막식	미디어아트 '황혼의 기적' 개막식	10.1(토) 19:00~21:00	고창 고인돌 유적 3코스 특설무대
연계행사	K-Tigers 태권도 시범단	10.1(토) 20:05 ~ 20:23	고창 고인돌 유적 3코스 특설무대
	1-1. 고인돌, 잠에서 깨어나다		고창 고인돌 박물관 앞 고인돌
	1-2. 기적의 빛		고창 고인돌 박물관 외벽
	2. 바람의 노래		고인돌교
	3. 황혼의 시간		가시나무길
황혼의 기적 (미디어아트)	4. 염원, 그리고 순환의 고리	상설 10.1(토) ~ 10.29(토)	가시나무길 선사마을 앞
	5. 작가 존		고창 고인돌 유적 2코스 부근
	6. 인류의 불빛		고창 고인돌 유적 3코스 부근
	7. 실감형모형상관		죽림선사마을 내부 움막
	삼거리 나무 포토존		습지안내소 앞쪽 삼거리
연계전시	기적의 빛, 희망을 밝히다	상설 10.1(토) ~ 10.29(토)	고창 고인돌 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
기타	고창 고인돌 박물관 야간개관	18:00~21:00 (행사 시 야간개관)	고창 고인돌 박물관

※ 우천시 (사건당 5mm 이상) 당일 행사 운영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우천으로 당일 행사 종료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 사전예약 고착의 경우 문자 알림 발송
※ 휴무일: 대주 월, 화 (3일, 10일 제외)

고창고인돌유적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황혼의 기적

해가 지면 우리의 염원이 모여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2022. 10. 1. (토) - 10. 29. (토)

관람시간 | 19:00~21:00
* 관람객 1인당 최대 3인, 10명 제한

고창 고인돌 박물관 및 고인돌 유적지 일대

World Heritage Site
Media Art of
Gochang Dolmen

고창 고인돌 유적 세계유산미디어아트 황혼의 기적

기간 | 2022.10.1(토)~10.29(토) 19:00 - 21:00
* 휴무일 | 매주 월, 화, 3일, 10일 제외

장소 | 고창 고인돌유적 및 고창 고인돌박물관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해가지면, 우리의 염원이 모여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황혼은 인생의 후반부를 뜻하기도 하지만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 낮과 밤이 만나는 시간,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사랑을, 누군가는 가족의 안정을, 어떤 누군가는 평화를 꿈꾸고, 세상을 떠난 누군가는 남겨진 이들의 안녕을, 모두의 염원이 모여 기적이 이루어지는 곳.

고인돌로 기억되는 사람들의 염원은 반딧불의 형태가 되어 떠오르고, 모두의 염원이 한데 모여 영원한 존재가 되고, 이 영원한 존재는 이 곳을 지키며 우리의 염원을 하늘에 전달합니다.

시간을 되돌려 잠에서 깨어난 고인돌과 함께 선사시대 고창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1-1. 고인돌 잠에서 깨어나다

고인돌의 찬란한 심장,
빛의 재의가 시작되면 시간을 돌리는
기적이 일어난다.

오랜 시간 침묵하던 고인돌이 신명나는 풍물소리에 깨어난다.
시간의 종파를 건너온 한민도의 영원들이 계절을 거슬러 빛과 함께
태동하면, 혼백의 신성한 빛의 수호자가 낮과 밤의 경계에서 서서히
말을 걸어온다.



1-2. 기적의 빛

반딧불이의 염원을 찾아서,
모로모로와 함께 아름다운 모험이 시작된다.

고창의 마스코트 모로모로가 박물관에서 사고를 일으키고, 과거로
별려 들어간다. 잃어버렸던 기억과 함께 혼백의 수호자가 되살아
난다.



2. 바람의 노래

간절한 염원을 따라,
잃어버린 시간을 찾는 여정이 시작된다.

고인돌교의 문턱에 서면 신성한 땅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느껴진다.
바람이 부는 다리 넘어 염원이 들려오는 황혼의 시간이 다가온다.



3. 황혼의 시간

낮과 밤의 경계,
황혼의 시간을 따라 걸으며 상상한다.

형형색색의 계절이 거꾸로 거슬러 세상이 뒤집힌다. 소원을 이뤄
주는 별자리들을 따라 가시나무길을 걸으면 낮과 밤이 함께 공존
하는 듯, 반딧불이가 깜빡깜빡 미스터리한 느낌을 만든다.



4. 염원, 순환의 고리

생명의 기억,
선사마을이 되살아난다.

선사시대부터 대보름이면 소원을 비는 오랜 전통이 있던 것은
아닐까? 오랜 시간 인류가 빌어왔던 소원들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수많은 염원을 상상하며 퍼드를 통해 소원을 적는
체험형 홀로그램이다.



5. 작가 존 | 뒤주마을

조영각 - The artificial tale : Chain reaction
(인공설화 : 연쇄반응)

인공지능(open ai : gpt-3)이 작성한
글을 통해 고인돌의 설화를 가상으로 생성하고,
이를 각색하여 인공지능 (Deep Learning : Text-to-image)을
통해 영상 생성기술로 제작한다.
과거의 유산을 모티브로 인공지능이 재구성하여 동시대의
기술로 그 의미를 전환하는 일종의 시뮬레이션으로 다양한
총위의 관념을 내포한다.



5. 작가 존 | 바당배위

서정원 - 기적의 바람을 듣다

고인돌에 담긴 염원을 주제로 '빛'과 '시간'의 연쇄적 관계. 그로
인해 탄생한 '생명'에 대한 서사를 극적으로 풀어냈다.
특히 고창 고인돌이 가진 장소성과 역사적 의미를 '바람'이라는
소재를 통해 비디오 형식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6. 인류의 불빛

구름과의 잊혀진 시간,
주인을 찾는 고인돌의 혼령들이 꽃을 피운다.

천지가 흔들리고 신성한 대지의 고인돌이 깨어나며 천개의 염원이
모여 당산나무를 이룬다. 되살아난 빛의 수호신이 꽃을 피우고
생명의 기운이 피어나며, 빛의 재의가 시작된다.



7. 실감홍보영상관 (주간 운영)

주간 유적지 방문자를 위한 영상관

아간에 진행 되는 미디어아트 행사의 촬영 동영상들 통해 아간
행사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아간에 방문하지
못하는 관광객들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기를 바란다.



◆삼거리 나무 포토존

세계적으로 무덤은 인류의 오래된 타임 캡슐이다.
고인돌과 함께 사진을 남겨보자.

오랜 시간을 거슬러, 시간의 종파를 건너온 고인돌처럼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희망해본다.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기억을 사진으로 담아보자.